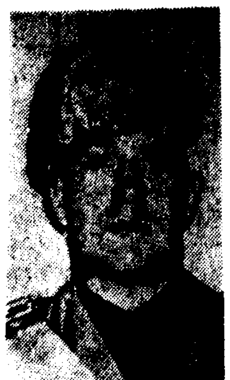
東亞日報
夕刊
十二月四日(日)

發行兼編輯人 白寬洙
印刷人
京城府光化門通一三九番地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電話代表番號 光化門 一九一〇

佛國政府의 抗議를 一蹴
反佛示威에 負責할수없다고
伊强硬態度表明



【巴里三日發同盟】伊太利의 佛領植民地要求示威에 關하야 巴里駐在佛大使는 二日午後 치아노外相에對하야 抗議的提議를하엿는데 치아노外相은 右佛國政府의 抗議를 一蹴하고 伊太利政府는 十一月卅日 伊太利下院에서 行한 反佛示威에 關하야 責任을 負할수는없다고 言明하고 伊太利政府의 强硬態度를 表明하엿다한다 (寫眞은 치아노外相)

伊態度依然强硬이면 佛大使撤退斷行?
英政府對伊自重要請

【倫敦三日發同盟】英國政府는 佛伊兩國의 緊張狀態를 重大視하고 ... 伊太利政府가 依然强硬態度를 取하면 佛國政府로서는 大使撤退를 斷行할 것은 必至로 觀測되며 ...

英國도不遠 對伊抗議?

【倫敦三日發同盟】伊太利下院에서의 反佛言辭는 이때에 ...

比律賓警察 邦人續續逮捕

南支某地點서 重要軍事會議開催

【上海三日發同盟】日本軍...

廣東市治安과 軍當局이 布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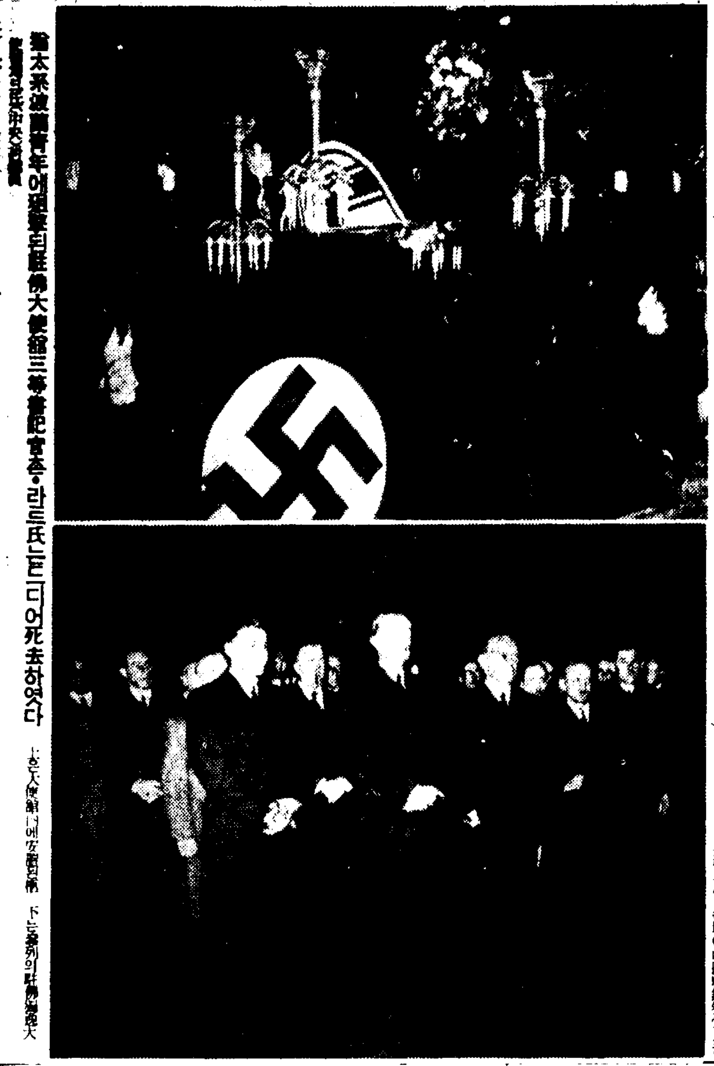
英租界工部局이 聯銀券受入承諾

【上海三日發同盟】天津英國租界工部局이 納稅로서 各地에 中國聯銀券受入을 ...

陸の荒鷲 活躍公表

五中全會
明年一月十五日擧行

【香港三日發同盟】重慶來電에 依하면 本月十五日開會의 豫定이던 五中全會(國民黨中央執行委員會第五次全體會議)는 準備關係等 理由로 一個月延長 明年一月十五日부터 擧行하기로 豫定하엿다



猶太系波蘭靑年에 狙擊된 駐佛大使館三等書記官 후옴·라트氏는 드디어 死去하엿다 上은 大使館門에 安置된 柩 下는 葬列의 驛頭光景

佛領츄니스

海軍航空隊協力下에 龍江等要地爆擊
北中南支戰況發表

【上海三日發同盟】陸軍報道部 三日午後四時發表

△北支方面戰況 十一月二十九日부터 十二月一日까지

△中支方面

△南支方面

河北、山西兩省 殘敵討伐狀況

國府從來親蘇策에서 漸次歐米依存傾向
共產黨의 勢力도 輕視不能

【上海三日發同盟】重慶來電에 ...

大別山系에서 敵이 使用하던 鹵獲武器

蘇聯大使、孫科에 長期抗戰繼續勸告
在支蘇飛行士總數七百

傅作義軍集結한 東勝附近을 爆擊
西北赤色루트東西角崩壞

九江에入市

京漢線끼리 赤色線建設에使用

宿遷米病院爆擊問題 圓滿히解決

【北京三日發同盟】...

軍官民一體의 精神運動必要
川島大將談

漢口駐剳 米總領事更迭

土肥少佐歸還

飯塚部隊長의英靈 故國에凱旋

【大阪電話同盟】...

花房同盟映畫部員 死體搜索

中央憲兵總司令 谷正倫被殺

【南京三日發同盟】...

王正廷三日 香港着歸國

【香港三日發同盟】前駐米大使 王正廷은 三日正午 香港到着의 ...

汎米會議 九日부터開催

【리마三日發同盟】第八回汎米會議는 來九日부터 開催하기로 되엿는데 ...

休日氣配 (十二月四日)

▲期米 正米實行不振이나 ...

▲株式 ...

▲綿絲 ...

橫說竪說

今日本紙四面

業界의話題 世紀의美談

豪華대평의花形陣

우리들은 제법 큰所望파 새로운 藝術的興奮을가지고 태평레코-드로모혓습니다。 언제이고 변변치못한 우리들을 위하야 무수한 激勵와 芳者을 애기지 안으시는 여러분들께 感謝하면서 우리들의 再出發이 헛되지 안키를 決心합니다。 오래 貴愛주시고 우리들의第一回선물을 期待려주시기 바랍니다。

崔南寶 李淑 朴貞林 金普香 宋蓮玉 미스·코리아

太平레코드

三千五百名採用에

生產되는技術者僅七十名

人的資源增產計劃着着進涉

신규생산이 三千五백명의 다수에 달하는 공업기술자의 인기는 절정로 고조되어가고 조선내 생산된 연회지원은 겨우 七十여명으로 대부족한 상태에 빠져서 일본내에서 상당한 배급을받지고 [illegible] 누보와 상거니와 총독부당국에서는 학무국과 식산국이 중심으로 인적자원의 증산을 도모하야 응급대책을 수립하기로되어 다음과같이 명년도부터 실시하기로 되엿다.

一、광산전문학교의 신설 二、공업학교의 신설—평양 그외 [illegible] 신설(三陟)에 두개씩로 이 시업학교를 신설하야 여재잇는경신、대구、부산、전주、북청、신의주의 六개교와 함께 八개교를 만든다.

四、광산과와 기계과의 신설 [illegible] 광산과(鑛山科)나 기계과(機械科)를 신설시켜 각三十명의신입생을 모집시키기로 되엇는데 기계과는 二년、광산과는 一년의 단기양성을 목적하기로 되엇다.

五、직장에다 양성기관을 두기로하야 [illegible] 설비잇는 공장이나 광산에서 五十명을 一년내지二년간 단기양성케 하려는것으로 목하총독부에 따라 설치되기로 되엇다.

"길목"取締·定員嚴守

警務局、再警告發送

興南事故로昨日長時間協議

取締當局의積極策을要望

조선의 교통기관 [illegible] 철도국에서 [illegible] 이만허 철도국과 함께 당국에서 [illegible] 함흥에 계속되어온지 오래인데 지난五일에 대구(大邱)에서의 두사고가 이번 흥남(興南)에서의 두사고가 모다 자동차와 [illegible] 二十여명의사상자를 내게되어 관계당국자로는 이에대한 생각이 [illegible] 더 높아지게되엇다.

이번 사고에서 얻은 교훈으로 [illegible] 시 교통기관 [illegible] 자(運轉者)를 배치하여야 한다는 [illegible] 경과 정원제도의 철저한 여행이 [illegible] 경이에 이중 수만지배치에 대하여 [illegible]

贈答品、年賀狀廢止

忘年會廢止、點心은十五錢짜리

報國週의京畿道行事

[illegible] 오는 十五일부터 二十일까지 一주간 전국一제히 실시되는데 [illegible]

一、[illegible] 저축세전매일.
二、연말연시의 증답품을 [illegible] 폐지
三、연하장을 관리상호가폐지
四、망년회등은 [illegible] 폐지
五、주점과 점심은 [illegible] 十五전이하로 할것
六、연시세배는 [illegible]
七、주간중에 [illegible] 十五전이하 [illegible]

明太바가沈沒

人命無事、損害六萬圓

今曉、西湖燈臺附近서

〔西湖津支局電話〕 四일오전 [illegible] 시경 [illegible] 명태잡이 [illegible] 배 [illegible] 에 [illegible] 하엿는데 [illegible] 에 태워서 [illegible] 구하엿다.

苑南町앞거리에서

行人轢傷코逃走

自動車行方을嚴探中

지난二일오후十一시경 시내 [illegible] 부근에서 [illegible] 자동차에 [illegible] 도주하여버 [illegible] 중상을입어 [illegible] 중인바 [illegible] 경찰에서는 자동차를 [illegible] 엄탐중이라 한다.

府內各戶를訪問하고

勞働力總量調査

明年度의勞力需給을調整

명十四일도 소요 노동자(勞働者)를 [illegible] 부내 각호를 방문하야 조사 [illegible] 노동력(勞働力)을 [illegible] 하고 세밀히 조사하여 [illegible] 한다.

歲暮商街의異變

景品券代身에奉仕券

百貨店에서는割引販賣

十日頃부터開始

매년 년말이되면 十二월초하로날부터 [illegible] 백화점(百貨店)의 [illegible] 경품(景品)을 [illegible] 여서는 전반적으로 폐지되어 [illegible] 잡지고잇다.

일본내지에서는 각도시의 상공단체에서 [illegible] 경품사를 폐지하엿다는데 조선에서는 [illegible] 부내지에서 [illegible] 다고한다.

그리하야 [illegible] 상점가(商街)에는 [illegible] 인하고잇던 장의와 [illegible] 백화점에서는 [illegible] 부터 三十一일까지 [illegible] 는바 [illegible] 천을 [illegible] 을 파부하리라는데 [illegible] 지 부내각상점 [illegible] 하게 되리라 한다.

金佑枰氏不起訴

瀆職嫌疑疑雲이一掃

〔新京〕 만주국 경제부 [illegible] 이 [illegible] 에 [illegible] 여 [illegible] 고 [illegible] 한다.

常習賭博黨

五名을打盡

[illegible]

元山에도

經濟警察本格化

〔元山〕 부청 [illegible] 경제경찰을 [illegible] 한다.

釜山第六小學校

放火犯逮捕

〔釜山〕 지난 十一월十四일 오후六시 부산 제六소학교(釜山第六小學校) 본교사 아래 [illegible] 에서는 단연 방화로 판정하고 [illegible] 지난四일 二十二일 새벽에 방화된 부산 [illegible] 사건과 [illegible] 지난三일에 그범인을 검거하고 엄중취조한 결과 [illegible] 자백하엿다고 한다.

今夜

送年公演最終日

午后七時부터府民館에서

主催·劇研座 後援·本社學藝部

送年大公演

今日、晝間에도盛況

장안의 인기를 [illegible] 극연좌 [illegible] 본사 후원의 송년대공연은 [illegible] 하야 [illegible] 三일 밤부터 四일밤까지 [illegible] 는 [illegible] 대만원 [illegible] 오늘밤 [illegible] 성황을 [illegible] 하기로 [illegible] 한다.

(사진은 [illegible] 광경)

天候

◇槪況 [illegible]

◇豫報 오늘밤은 [illegible] 小雨、小 [illegible]

昨日溫度 最高 二、八 最低 [illegible]

今朝 [illegible]

天道教宗理院

五十萬教徒動員

年末報國週實行

[illegible]

科學知識普及會

新役員選擧

과학지식보급회(科學知識普及會)에서는 작十二월三일 오후 [illegible] 시부터 시내 [illegible] 에서 [illegible] 회장에 [illegible] 이 선임되엇다.

橫綱玉錦逝去

〔大阪電話〕 지난二十八일 [illegible]

籠聯戰

明五日競技發表 【青年部】

[illegible]

中等部明日로終幕

部位轉換戰도擧行

[illegible]

今年度學生

陸上五傑

[illegible]

▲百米

[illegible]

▲二百米

[illegible]

▲四百米

[illegible]

▲八百米

[illegible]

▲千五百米

[illegible]

▲五千米

[illegible]

▲高障碍

[illegible]

▲中障碍

[illegible]

▲低障碍

[illegible]

▲走高跳

[illegible]

▲走幅跳

[illegible]

明日의運動

◇籠球 中央基靑主催 本社後援 第十二回 中等部 籠球聯盟戰最終日 京纖─電機(午後六時半) 中央─善隣(午後七時二十分) 培材─儆新(同八時十分)

籠球聯盟戰 (最終日)

明—京纖—電機 中央—善隣

夜—培材—儆新

部位轉換戰 (最高、青學)

◇午後六時半부터基靑에서

惡性感氣 神奇하게擊退

不老長壽 強精回春 更少幸藥

百補丸

京城堅志町 平和堂 一劑十円

高木貴金屬店

御料理、妓生代不要

東京川 公月官

醸造場合併謹告

李花醸造株式會社

松浦整形外科

本報 京販

電光七三〇番

東光堂文具卸部

強腦強精

暴君鯤은精力은絕倫

オオコンリオン의偉力

一粒의營養價値는鷄卵

十五個、牛乳三升에匹敵

遞信大臣水井柳太郎閣下로부터

愛知水產試驗場長西墻技師는

左記와가티말고試用하시오

東京市日本橋區江戶橋二丁目

日本水產理研東京營業所

スケート用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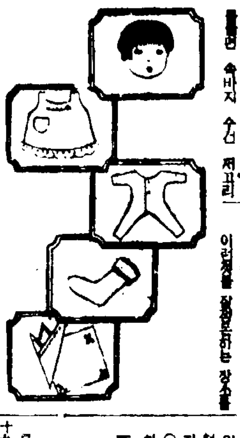
떡먹이는 다섯살이예도 밥을 먹으면 온방안에다 밥풀을 파 허치지요.
「너 턱배끼를 하구서 밥을 먹던지 해야지 어디 견디겟니」
하고 할머니가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러케 큰데 어린애가 턱배끼를 하게。」
하고 천연덕 스럽게 말을 하시요。
「턱배끼하는게 부끄러운줄 아는것이 밥은 왜 흘리노。」
하고 할머니가 말씀하시니까
저는 할말이 없던지 싱긋이 웃겟지요。

家庭

집안정리법 (3)

주부의 머리를 정돈하면 시간과 노력에 여유가 잇다

좀더 능률잇는 생활을 합시다



라디오

家庭時間(後一·一五) 精神衛生이야기

放送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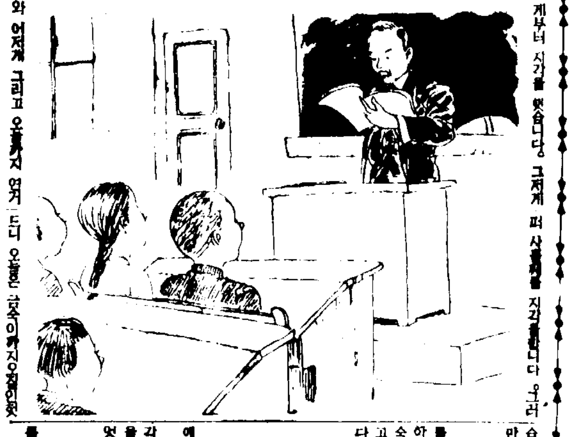
十二月四日(日) 第二放送

十二月五日(月) 第二放送 / 第一放送

十二月六日(火) 第一放送

선생님을 울린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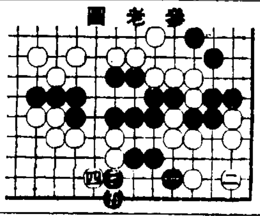
朴興珉



정신적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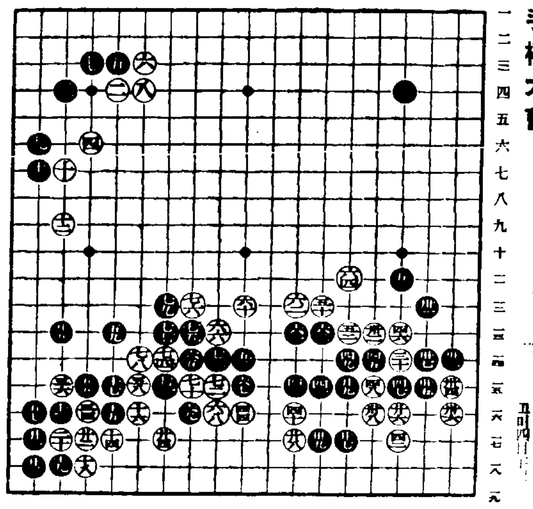
黑左側進出成功 白中原勢力把握

圍碁欄



本社主催 第二回全朝鮮選手權大會 리그戰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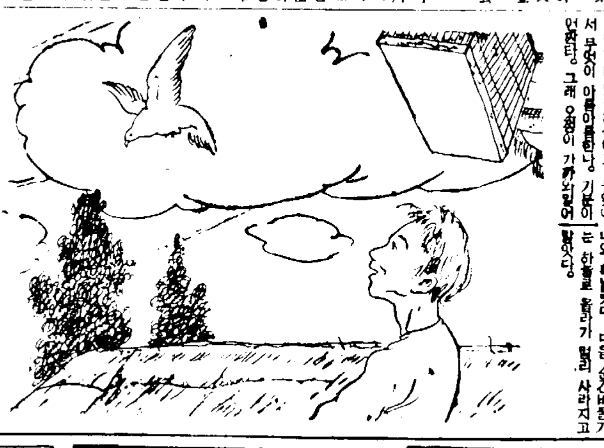
先相 白 權戴衡 / 黑 閔仲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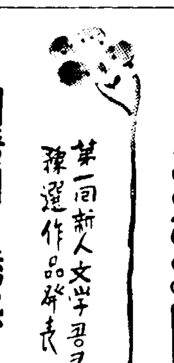


비둘기의 誘惑 (9)

金永錫 作 / 盧心汕 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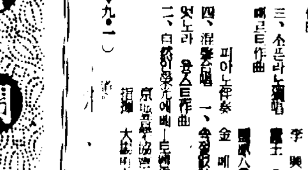
第一回新人文學콩쿨 入選作品發表





三星票 ステープル ファイバー 人絹 織物製造販賣
朝倉織布工場

말더듬이
아무리심한말더듬이라도절대책임지고교정함
大邱府南山町六一七 訥言專門矯正院


檢眼無料 (學生限)
檢眼於本院眼科
◇檢眼◇ ◇眼鏡◇
京城驛前 セブランス病院
セブランス眼鏡部

外科 肛門病科
醫學博士 朴昌薰
入院室全部獨房 暖房及冷房完全

日鮮支那語大海

無效返金絕對責任藥
京城驛前 都藥房 林房藥 都藥房
藥價 二円·四円·八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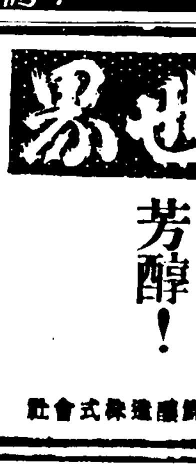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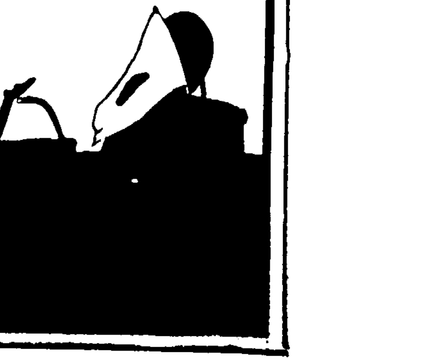
말더듬이
訥言專門矯正院

科喉咽鼻耳 善
醫學博士 永日善
備完室院入

東洋劇場

마음의眞珠

東劇映畫部


宿醉치안는健康日本酒
新世界 理研清酒
向하는곳에 敵없다
無比한 芳醇!

大鮮釀造株式會社

ClibPDF - www.fastio.com

鑛物不正販賣續出

一원五、六十전짜리를三원이상으로판매

平南經濟警察活動

【平壤】 수일전 그진용을정비하야 실제적 활동을개시한 평양도 경제경찰은 우선 평양부내 각 금물상점(金物商店)을 일제취체하야 상품의 판매가격을 조사하엿던바 부정판매자가 속속발견되엿다한다 즉 아연판(亞鉛板)은 정가 一원五、七十전짜리를 三원이상으로 판매하고 잇으며 모-타와 철재(鐵材)기타 고물품을 정가의 十배이상을 받는지까지 잇고 이것이 발각되지안케하기위하야 전표(傳票)를 발하지안코 판매하는예가 만타한다. 이와가튼 악덕상인가운데는 심지어 가장 큰회사와 유명한 상점들까지 끼어잇어 경찰당국을 놀나게하고잇는데 금후는 이를 엄중취체하야 용서업시 처단하리라한다.

通行人二名亂打 金品強奪코潛跡

金海郡에強盜出現

【釜山】 지난 一일밤 十一시께 김해군 북면 수산리(金海郡北面守山里) 여관(呂光春)과 ○○○(金成坤)(二○) 두명은 부근 박경(朴京)(進永)으로부터 본가로 돌아오든 중 동면 명동리(同面明洞里) 고개(峠)에서 정체모를 괴한 二명이 나타나 전기 二명을 난타하고 금품을 강탈한뒤 도주한 사실이 잇섯는데 김해경찰서에서는 비상선을 늘리고 범인을 엄중수사중이라고 한다.

果物窃盜少年 更生園兒亂刺

【平壤】 지난三일 오후 五시경 부내황금정(黃金町) 전차 정류장앞 과물상점에서 어떤소년이 과물을 훔쳐가는것을 마침그곳을 지나든 경성부이 김봉옥(金鳳玉)외 二명이 발견하고 따러가던바 이소년은 본정(本町)마-켓에 숨어잇다가 그곳까지 따러가던동을 품에 두엇던 칼로 얼굴을 란자하야 중상을 입혓는데 이것을 안 평양서원은 곳 범인을 체포하여 취조하엿던바 그는 본적을 평북 운산(雲山)에 두고 주소부정인 김봉삼(金鳳三)(一七)이라는 소년으로 평양여대학생에 드나들며 누차의 절도범행이 잇는것을 자백하엿다하며 부상을당한 김봉옥은 방금 평양 천일의원(天一醫院)에 입원치료중이라한다.

出獄不過一週日에 또다시窃盜行脚

星川署犯人嚴調中

【星川】 복하 성주 경찰서에서는 전과三범의 절도범을 검거하야 엄중취조를 진행중이라는데 그는 하든 성주군 상성리(?) 박모(朴○○)(二二)라는데 지난十一월二十五일 대구형무소를 출소하야 또 다시 도처를 배회하며 절도행각을 계속중 마침내 지난二일 성주경찰서의 손에 걸닌것이라는데 아직 여죄를 취조중이라 한다.

咸陽消防組에서 防火宣傳努力

【咸陽】 불을 가까히 하여야할 겨울을 맞이하야 함양소방대에서는 『겨울철은 불조심』이란 표어로 방화선전을 부단히 행하고 잇는데 이제 더욱 철저를 기하리라 한다.

平壤에硫安工場 明春設置計劃

【平壤】 지금까지 도내에서 산출되는 유산(硫酸)과 유안(硫安)은 이 공장에서 대량제조할 계획으로 평양도당국에서도 이에 대하야 비상한기대를 가지고잇다한다.

釜山戶谷癩病患者 小鹿島에收容計劃

四百명을명춘에이송예정

【釜山】 부산부 부전리 호곡(釜山府釜田里戶谷) 산기슭 四百여명 나병자(癩病者) 부락으로부터 새해엔 소생(蘇生)의 봄이 찾아오게 되엇다. 즉 부산시중을 배회하는 환자의 문제는 부산시민의 보건상 중대문제로 二十二萬시민의 여론이 높아진 결과 이문제는 소재지인 부산서에서도 항상 두통거리엿던바 이번에 소록도(小鹿島) 갱생원과 교섭한 결과 명년 十월까지에 전부를 소록도로 보내어 수용하기로 결정되엇다 한다.

五十回鎭南浦府會 平穩裡原案可決

【鎭南浦】 지난 三일 오후一시부터 제五十회 진남포부회가 동부청회의실에서 개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 동 二시에 무사히 폐회하엿다.

志願兵二人合格

【開城】 부내 남산정(南山町) 一二三번지 이인(李仁○)(二○)과 개풍군 봉동면 외곡리(開豐郡鳳東面外谷里) 一○七번지 김교문(金敎文)(二一) 두 청년은 육군 특별지원병 제一기생으로 영예의 합격을 하엿다는바 개성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라 한다.

堆肥增産을兼하야 家畜增殖獎勵

【開城】 개풍군(開豐郡)에서는 가축증식과 퇴비(堆肥)의 증산을 기도코저 벌서부터 가축증식(增殖)을 적극장려하야 지난 일년간 실적을 보면 작년보다 소(牛)는 四百二十三두 돈(豚)은 一千二百六十九두의 증가를 보이엇는데 앞으로 금년도에는 그보다 더욱 증가를 보이도록 적극적으로 장려를 가하리라 한다.

十四尺언덕에서 醉客墜落即死

【釜山】 부산부 보수정(釜山府寶水町) 一정목 一문재귀(文在貴)(二○)는 지난二일 오후六시경 술이 만취되어 봉래정(蓬萊町) 十四번지 앞모생(梁道生)의집 부근을지나다가 높이 十四척이 되는 언덕에서 추락되어 후두부를 몹시부딧처서 인사불성이 된것을 부근사람들이 동정병원(同仁病院)에 다려다 응급수당을 가하엿으나 효과업시 절명하엿다고한다.

南浦의鹽販賣高

鹽田擴張따라增產

【鎭南浦】 진남포전매국출장소(鎭南浦專賣局出張所)의 지난十一월중 염판매고는

△一等鹽　四、七八八、〇〇〇斤
△二等鹽　八七七、八〇〇
△加工鹽　七九二
計　五、六六六、五九二

금액으로 十一만九千二百八十九원 六十六전으로 전년동기에 비하면 一등염에 잇어 二十二만八千斤 二등염에 잇어서 二十만二千八百斤가 각각증가되엇고 가공염만이 근히 二百六斤의 감소를 보이엇으나 총금액으로보면 六만八千百十九원九전의 증가를 보이엇다. 이는 오로지 연년 증가되는 수용으로말미암은것이지만 대부분을 초래 …

戶別稅免除額決定

人員一萬六千名에 二千三百餘圓免除

慶南旱害農家에喜報

【釜山】 지난여름한해(旱害)로 진주군(晋州郡)외 七개군에 그한 피해농가에 대하야 경남도 관계당국에서는 지세(地稅)면제 등 각종세액을 면제(免除)하고저 준비중이라함은 기보한바어니와 요지음 경남도의 호별세에 대한 면제액을 결정하엿는데 이에의하면 면제총인원 一萬六千十五인에 대한 면세액 二千三百七十六원 十七전인바 각군별은 다음과갓다.

	人員	圓
晋州	七六八	[illegible]
宜寧	二、四三三	[illegible]
咸安	二、〇〇八	[illegible]
昌寧	六、三三六	[illegible]
密陽	一五〇	[illegible]
金海	一九二	[illegible]
昌原	一、七八二	[illegible]
陜川	一、一〇六	[illegible]
合計	一六、〇一五	[illegible]

六圓一七錢

指導過誤에起因되여 舍人面農形이不作

동척에서는작료감하거절

三百作人陳情準備

【淸州】 군내 최유의 대농작의 농사개량을 실천하여 만부인이 소작실을 기도하엿다는 요사이 허가되엇으므로 오는六일에는 그방법에 대하야 회의를 거행하리라는데 그리자면 군내 사인면(舍人面) 에잇는 동척회사(東拓會社) 소작인 三百여명은 동회사지도원의 지시로 금년 특별히 전기 회사지도원으로부터 그대로 시행하엿던바 예년에 비하야 감소되어 전수확을 하여도 소작료와 비료대가 되지 아니하여 소작인들은 방금 사경에 이르게 되엇슴으로 전기회사에 이를 감하여 달라고 탄원하엿으나 엄연히 거절당하엿으므로 동군 관계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리라 한다.

龍岡吾新面에 消防組를設置

【鎭南浦】 용강군 오신면(龍岡郡吾新面)에서는 소방소(消防所)설치에 대하야 당국에 인가신청중이던바 요사이 허가되엇으므로 오는六일 조직을 하리라는데 그조직은 조두(組頭)一인 부조두一인 소두(小頭)三인 소방수三十인으로 하고 초대조두에는 가룡면장 김지목(金智睦)씨가 임명되리라 한다.

趙澤元舞踊會

【大邱】 대구 부민의 시청과 흥미를 집중코잇든 조택원(趙澤元) 동인 김민자(金敏子)모용연은 동연 조선일보 경북지사의 주최로 지난二十九일 대구공회당에서 개최되엇다. 정각을 넘기 三十분후 이상화(李相和)지사장의 인사로부터 시작된 조선고전무용의 호화판을 열개되엇다는 대성황을 이루엇다.

人妻厭世自殺

【永登浦】 일본으로 엄용이 되처 오듯을 무서워하던지 세상을 비관하고 정당한 생활상이 가다리는것을 물이 망이(安信)한이지 모든것을 몰이 보지안코 경사리 신변경구석에 갑도띠난 부인이엇다. 그는 금일 오전八시五十분 대전행화물열유 차가 남경성역을 향하야 오는도중 동역부근의 지하기도를 마을이 치어 즉사하엿다. 그는 금년 二十七、八세가량 되어 보이는 노동자형의 여자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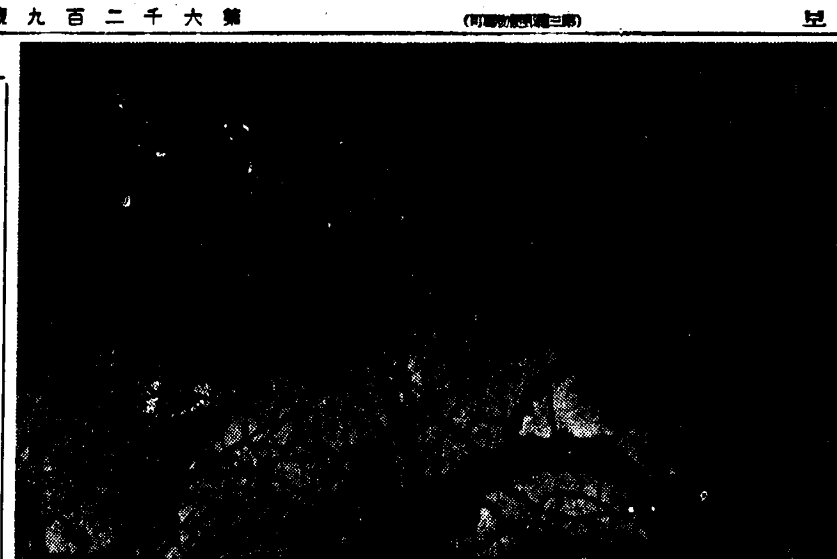
釜山南濱港內서 船舶衝突되어沈沒

損害約三千五百圓

【釜山】 지난二일 오전三시三十분경 부산항남빈(釜山港南濱)에서 항외로 향하든 경북영일군포항읍(慶北迎日郡浦項邑)의 송원환(松原丸)(十九톤)이 운반선 구길환(久吉丸)(十九톤)의 좌현(左舷)을 받어서 선체가 대파로 즉시침몰(沈沒)되엇는데 구길환의 선원三명은 구조하엿으나 그뒤에 따라오는 피해선을 미처피할사이가 없어 그와같이 충돌되엇다 하며 손해는 약 三천五백원이라고한다.

懷仁道路工事完成

【報恩】 보은군의 다년 현안이던 보은、회인(報恩、懷仁)간 도로개수문제는 지금으로부터 二년전에 구민총동원의 부역(夫役)으로 난공사를 제외하고 개수공사를한후 충북도당국에 대하야 그간 보은군번영회에서 난공사를 하여달라고 누차진정한바 그난공사를 지난八월부터 시작하야 이제 공사를하던중 지난달 하순경에 드디어 공사가 완성되엇다 한다. 이도로가 완성됨에 따러 보은、청주、(淸州)간이 거리로三리가 현재보다 단축되고 또보은、대전(大田)간이 소통이되며 떨어서 또리가 현재의 관통부보다 二리이상 단축되어 금후 보은으로서는 유一한 경제도로가 될것이라고 한다.



잎떨어진 枯木 (平壤)

내새 地課 方題

高女、圖書館設置

소학교이전문제도초미의긴급문제

安岳에緊急問題

우리안악(安岳)은 옛날부터 해서에 유一무二한 봉주거읍(鳳州巨邑)이라한다. 면적이 광활하고 토지가 비옥하야 주민생활에 걱정이 없다. 그리하야 부호도 만코 사회시설도 상당하야 전에없는 종하교도 생겨나고 면(面)이 변하야 읍(邑)으로 승격되도 지인한 주세라이니 할수없다. 그런데 악진안악에 목하긴급문제가 잇다. 이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될것을이에 기록하야 一반사회인사의 비판과 실천을 구하는것 이다.

女子高校設立問題

안악여교설립문제는 지나간 九월경에 안악 김씨문중에서 一금十五萬원을 안악여고 설립에 사용하여달라고 지정하야 황해도지사에게 납부하엿으므로 一반사회에서는 의외에 안악기쁜 문중의 장거(壯擧)를 알고감사의 뜻을 표하기위하야 일변 괴성회를 조직하고 사회적으로 하고당국에 설립허가를교섭하게되엇다.

그런데 생도도잇다. 하루빗비 설립하야 교육의 전진을 지바라지만 사회의 장래 성문은 二세국민 교육의 성패여하에 잇음은 재언을 불요하는바이다.

그런데 안악여고 설립지명조 자체의 소식을 듣건데 안악여고 설립기성 사무는 안악번영회가 담당하야 진행한다는데 안악번영회에서는 때때로 도(道)와 총독부에 직접가서도 교섭하는 등 노력은 하고잇다한다. 안악번영회가 노력함도 감사하거니와 학교당국은 안악여고문제를 속히해결하라. 一반 민중은 안악여고문제를 해결지아니하면 안되리라는 여론이 자못높은것이다 당국자의 솔선하기가 안악사회의 긴급한 문제이다.

圖書館建設問題

안악도서관(安岳圖書館)건설 문제는 벌서부터 독지가의 三萬원 기부가 잇어 각신문지상에 호소식을 전하고잇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현이 되지못하엿다. 속히 실현되기를바라는바이다. 필요하다하노니 안악은 아직까지 교육이 불편한 관계이 부족하야 그러하야 성인교육은 현재도 서관만한 교육기관이 없다. 도서관은 도서만읽는 곳이 아니라 一반적 성인교양의 중요한 강좌(講座)가 잇으므로 사회一반적성인교육에는 도서관만한 교육기관이 없다.

생각컨대 사회는 문화향상을 자연적으로 요구하고 잇다. 그리하야 현대사회현상은 一반적 사회수준을 종하하야 사실이 실현되여야할것이다.

보라 안악사회의 없는 중하교가 생겨남도 이것이 또한 중거가 아닌가. 안악유지는 동성 합력하야 만대불후의 사업을 속히 실현하라. 一인의 호의(好意)는 만인을 통하는 도서관설립문제로 만하지말고 실현을 구하여라 안악의 도서관설립은 안악을 위하야 목하의 긴급문제로 이문제 역시 독지가의 기부가잇음을 계기로하야 해결의 열쇠를 가진사람이 누구인가 잡겨잇는 안악사회에서 三萬원 쯤 판비하야 지방도서관이나 하나 설립함은 파히 어렵지아니한 문제이다. 사계를 위시하야 주민공이 속히나오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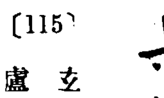
昭和小校移轉問題

안악소화공립소학교(安岳昭和小學校)교사 이전문제는지금으로부터 수三년전 사회문제가 되엇다. 생도는 증가되고 교사는 부족하고 운동장은 협착하야 아동교육상 불편이 적지아니하여 오던바 그대에와서는 현재교사로는 도저히 학생을 수용할수 없게되엇다한다.

그러면 명년도 학교확장에 동문제는 자못초미(焦眉)에 걸쳐잇다. 아즉까지는 학교부숙농구상고(農具倉庫)제사(製絲)를타인의 허가를 얻어계속하여왓으나 명년부터는 이용할길도 없고 학급은 증가되게되어 그하교장은 심히걱정하고잇다한다. 그리하야 안악번영회에서는 때때로 회합하야 동교문제를해결하기로 이것저것을 연구한결과 종동의 방안을 연구하엿다는데 제一안은 모모 유력자에게 출연을 구하고또는 현교사와 기지를 (안악安新)학교에 매도하고 그부족액은 도의보조를 구하여 十八萬원으로 이전한다한다. 이문제도 안악번영회가 중심이되여활동한다하니 과연 안악 번영회야말로 사명이중대하다 一일이라도 속히 실현하기를 바라는 반면에 一반사회의 유의인사의 만흔 성원을 빌어마지아니한다.

【安岳支局 一記者】

無影塔 (115)



玄鎭健 作
盧壽鉉 畵

『그렇의 소위가 분해서 견딜수 없고나』

주만은 쓴 웃음을 놓고 꼿꼿이 새운 눈섭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어 누이엇다.

『아무리 분하신들 어쩌자는수가 잇어얍지오』

『그도 그러타 마는……』

『인제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거정하실 일이 잇는던지요。금성서방님이 ……』

『그 금성서방님이 다 머냐。금성이라고 하구 불러라。그런 위인을 위해 말하는소리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는고나』

『그럼 금성이가 그러시죠. 아사달서방님도 아가씨가 그러구 그러탄 소문이나 퍼트리지 안을 갑시요』

『소문 좀 퍼트리는거야 하상대사냐。』

『저의들어 들이쳐보아도 아마 참 아가씨께서 게시지를 안흐셧으니까 망정이지요. 왜야 부딜건디지가 없지마는 얼마동이틀 국사에찬은 정지를 하셔야 될겁니다요』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뛰어가고싶고나 아사달님이 어떠케 되셧는지 궁금해 어디 견딜수 잇는냐』

『안됩니다。아뇌고 말굽시요。단엇정이라도 지나서 그소문이나마 쏙 잦아지면 몰라도 지금만일 행차를 하셧다가 혹시 중의 눈에나 띠어보시지요。당장에 해괴한 소문이 퍼질것 아닙시요。그 유부녀라는게 아가씨로 지목이 될것 아닙시요』

『떠는 네말도 그럴듯하다 마는 어디 궁금해서 견딜수 잇느냐』

『그래가 뭐냐。가면 꼭가야지』

주만은 입부러 화증을 더럭 내엇다。

『벌써 여러날이 되엇으니 혹시 몰라 하옵시오……』

하면서 털이는 고개를 턱 숙이엇다。

『오기는 누가 온단말이냐。아사달님이 온단말이냐』

『아닙시오。저어……』

웬일인지 털이는 숙인 목덜미가 발그스름해진다。

주만은 수상쩍다는듯이 털이의 얼굴을 디밀다 보라니까。털이는 더욱 더욱 고개를 외오치는데 그 빨어지라가 팔을 닿아보는듯 이귀이긴 타오르는듯 하엿다。

『누가 온단말이냐。말을 해야 알것 아니냐』

주만은 더욱 괴이쩍어하며 또 한번 재처물엇다。

『사람이 어쩌면 그러케 매정스러웁시요。벌서 여러날이 되어 침대는 아러케 보고싶은데……』하고、털이는 아주 얼굴을 뒤로 돌려 버린다。

『누가 매정하단 말이냐―』 주만은 다시 채처묻는다가

『오、올치 차돌이 말이로고나』

스스로 깨우치고 오래간만에 얼굴을 펴고 웃엇다。

『우리는 못갈 처정이잇어 못가나마 저는 어연히 볼수있을 것 아닙시요。그런데 당초에 올생각도 안흐니 그런깨』

『호호、 때는 차돌이가 마쁨 궁금한생각이 풀리기도 하겟다마는……』

주장은 이런수작을 후고 밤중에 벌빌손을 가만가만 두드리는 소리가 낫다。

주만은 바늘방석에나 앉은것처럼 안절부절을하엿다.

생각하면 생활할수록 아사달에게 미안한 일이엇다. 자기 때문이 아니엇든들 그런 고통을 당할 까닭이 만무한 노릇이 아니냐. 차라리 그렇게 알앗으면 그날밤에 회정을 말것을. 아무리 기막힌 명사이라도 같이 경주해목에 같이 들어와서 그이의 앞에 바아섰을것을!

새록 새록이 살이 떨리기는 금성의 행동이었다. 저와 나와 무슨 원수이 그대로록 몹시 억압고하며 그만한 창피를 보앗으면 의레히 단념을 할것이어늘 끝끝내 남의 위를 밟고 안타가운 사람에까지 해살을 노흐란 것은 그 무슨 못된 심청인고. 분한 대로 할것갔으면 지금당장이라도 찡마단도로 저의집에 지처들어가. 그 구족하고 더러운 생각이 드는 머리를 덜렁 버혀버리도 시원치 안을것 같다―。

『예끼, 아가씨. 무슨 눈총 그러케 무서기 뜨십시요』

앞에 앉엇든 털이는 질색을 하치엿다.

『그렇너 혼자라도 참견다녀올 수 없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털이가 가도 유표하게 보일것은 마찬가지 아닙시오. 더구나 아가씨를 안보시고야 그 어두운 밤길을 어떠케 갓주 잇어야지요』

털이는 그 통그란 눈을 더욱 호동그러케 떠서 무서운에 떠는 시늉을 해보이엇다.

하루가 지낫다. 이틀이 지낫다 주만의 생각은 섞기탐으로 살같이 달렷마는 털이가 좇시 말을 아니 듣고 말리기도 하엿거니와 더구나 사촌인이 혼인 옷마련질을 종용한 별당으로 가저와서 밤낮으로 잇기 때문에 더구나 자리를 뜰수없엇다.

하물는 저면나절 주만은 털이를 보고 가청하다 싶이하엿다.

『애, 아파해도 궁리해 견딜수 없고냐. 오늘은 세상없어도 좀 가 봐야겟다』

『글세시요』하고 오늘따라 털이도 구지 말리지를 안코 고개를 가웃등하며 무엇을 생각하는 눈치엿다.

パピリオクレーム
오래된製法에依한바
니싱은硬하다。
새로운製法에依한바
니싱은柔하다。
피 피 리 오 크 림

東亞日報社平壤支局
電話番號 一九〇七番

ノルウェー製 (舶來品)
オスローハーゲン
スケート
新荷着
和信運動具部

絶對優秀なビクターを御求めの折は
ビクター蓄音器
ビクター手提型 J2-一八型 六〇円 J2-一七型 七五円 ¥50.
手捲式箱型 J1-五一型 六〇円 J1-七一型 八五円 J1-九五型 一一〇円 J1-40 ¥50.
電蓄
ラヂオ兼用 JE-二七型 三三五円 RE-五五型 一九〇円 RE-五一型 二一五円 RE-三三型 三五〇円 RE-四八型 五三〇円 E-19 ¥155.
ビクターラヂオ R-一〇五型 一〇〇円 R-一〇六型 一三〇円 R-一二二型 一四〇円 R-101 ¥80.
京城 鍾路二丁目 山口樂器店鍾路支店 電光(3)四八 振京二二七六六